

편집 및 발행인 : 김중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jhlee8604@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호주 뉴질랜드 운송 및 창고업 부문 노동 비용 지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 상승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Maersk, 덴마크에 친환경 창고 건설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미 오콜랜드항, 트럭시위와 공급망 문제로 7월 컨물동량 급감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세계 최대 중국 '컨' 제조업체, 미 압박으로 경쟁자 인수 포기

● 글로벌 물류시장 이슈분석

- ESG 2.0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 전략

● 공지사항

-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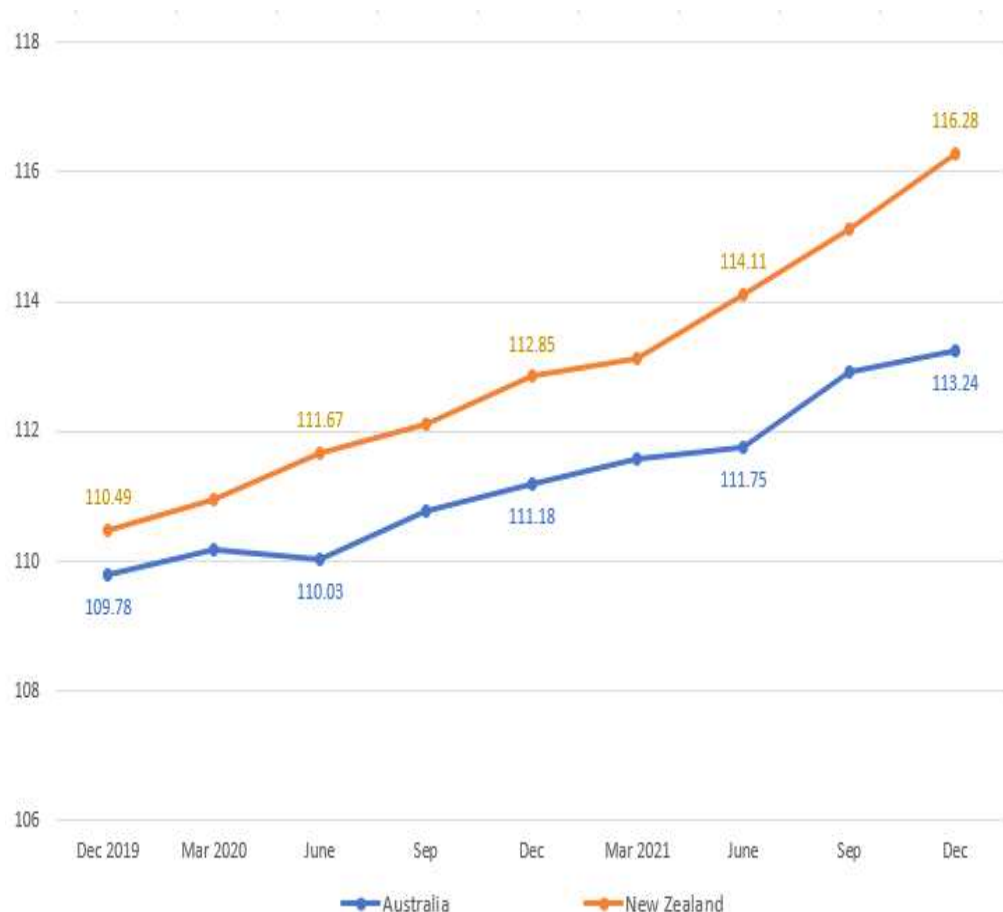


호주·뉴질랜드 운송 및 창고업 부문 노동 비용 지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 상승

▶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운송 및 창고업 부문 노동 비용 지수 (2015년 100기준)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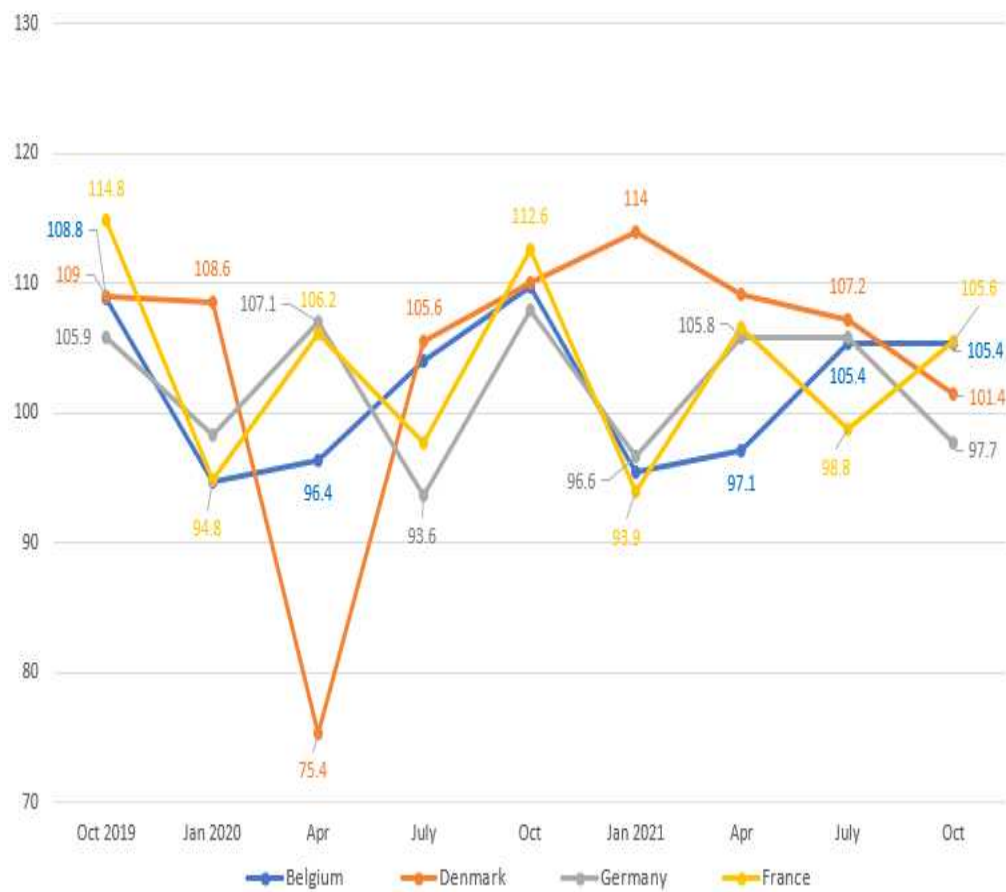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2019년 12월 각각 109.78과 110.49였던 운송 및 창고업 부문 노동 비용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2020년 6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2월 각각 113.24와 116.28을 기록해 2년 동안 3.15%와 5.24% 상승함
- 반면, 서유럽 주요 국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위 국가들과 달리 운송 및 창고업 부문 노동 비용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기보다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성만 보여 다른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양상을 보인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원자재 수출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회복 및 성장을 보인 반면 원자재 수입을 주로 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 회복 및 성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호주·뉴질랜드 운송 및 창고업 부문 노동 비용 지수(2019년 12월-2021년 12월)



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8.30.)

서유럽 주요 국가 운송 및 창고업 부문 노동 비용 지수(2019년 10월-2021년 10월)



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8.30.)

참고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8.30.)

Maersk, 덴마크에 친환경 창고 건설

- Maersk가 Taulov Dry Port와 협력해 덴마크 최초의 저온실가스(GHG) 배출 물류 창고를 건설한다고 발표함

 - 본 창고는 2040년까지 전체 작업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BREEAM Excellent 표준에 따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설은 40,000sqm 규모로 40,000sqm를 증설할 수 있으며, 2024년에 가동될 예정으로 창고는 덴마크 남부의 Taulov에 위치함
- Taulov에 건설될 창고는 연료와 에너지로 인한 탄소 배출이 없는 최초의 물류 창고임

 - 창고의 모든 실내 및 실외 장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창고 전체 지붕에 태양열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고 수소 충전소는 창고에서 150m 이내에 건설할 계획임
 - 전기 충전기는 상업용 트럭 및 자동차뿐 아니라 개인용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스쿠터도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될 예정임
- Maersk Nordics 지역의 Birna Odefors 전무이사는 Taulov 창고는 유럽의 전략적 위치에 건설되어 항만,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최적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물류 분야의 일반적인 고객 요구사항인 재고관리, 비용 최적화, 확장된 가시성, 시장 출시 속도 및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물류 흐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친환경 창고 조감도



자료 : www.maersk.com, (검색일 : 2022.8.30.)

참고자료 : www.maersk.com, www.offshore-energy.biz, (검색일 : 2022.8.30.)

미 오کل랜드항, 트럭시위와 공급망 문제로 7월 컨테이너물량 급감

- 트럭 시위와 공급망 문제 등으로 7월 오کل랜드 항만의 컨테이너 물량이 급격히 감소함

 - 금년 7월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해 116,629TEU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물동량임
 - 수입 물동량은 69,463TEU로 전년 대비 약 27% 감소했으며, 수출 물동량은 47,166TEU로 전년 대비 약 31% 감소함
- 캘리포니아 AB5법에 대한 트럭 운전기사의 항의로 터미널 야드에 혼잡이 발생했으며, 터미널 운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침

 -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는 수출 선적을 위한 터미널 생산성을 저하시킴
- 오کل랜드 항만은 중국의 공장 폐쇄, 선박 일정과 수요의 변화 및 트럭 운전자 시위 등으로 인해 3월 이후 물동량이 감소함
- 특히, 트럭 운전기사의 시위로 인해 적어도 한 달 이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Flexport의 Freight Market Update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항의로 인해 터미널 체류 시간이 최대 19일로 늘어남
- 물동량 감소는 선박 기항 횟수 감소와도 영향이 있으며, 앞으로의 해상 운임 하락 또한 미래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오클랜드 항만 전경



자료 : www.supplychaindive.com, (검색일 : 2022.8.30.)

세계 최대 중국 ‘컨’제조업체, 미 압박으로 경쟁자 인수 포기

- ▶ 지난 8월 25일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글로벌 최대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CIMC(China International Marine Containers Ltd.)가 Maersk의 냉동 컨테이너 제조 자회사인 MCI(Maersk Container Industry) 인수계획을 백지화했음

 - Maersk는 2021년 9월에 자회사인 MCI를 CIMC에 997.3백만 USD에 매각하기로 발표했었음
 - CIMC는 덴마크 팅레브(Tinglev)에 있는 R&D 센터와 중국 칭다오(Qingdao)에 위치한 냉동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었음
- ▶ 이와 같은 배경에는 미국 법무부가 관련 거래를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CIMC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음
- ▶ 미 법무부는 해당 거래가 성사될 시 세계 4대 냉동 컨테이너 공급사의 50%가 합병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기업 지분의 90%를 소유하거나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이 해당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표명했음

 - Jonathan Kaner 미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미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일상 용품은 글로벌 냉동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CIMC의 MCI 인수는 해당 품목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와 취약한 공급망이 형성되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CIMC가 MCI를 인수하게 되면 이미 과점적 성격이 강한 해당 시장에서 더욱 CIMC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음
- ▶ 최근 미 정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중국 기업의 투자 또는 인수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ESG 2.0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 전략

- 2021년 COP26¹⁾에서 주요국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큰 틀에서 합의하며 ESG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을 높임
- 특히 코로나19 동안 전 산업에서 ESG가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으로서 부상하며 유통, 물류산업에도 ESG를 둘러싼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과거 기업의 가치는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즉 재무제표와 같은 자료에 의해 평가되어왔으나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통, 물류, 소비자 관련 기업에게 ESG 경영활동은 기업의 단순한 마케팅 또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ESG 트렌드 가속화



자료 : www.home.kpmg, (검색일 : 2022.8.30.)

-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ESG 2.0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UN Climate Change Conference 26: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ESG 1.0 시대에는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목표 선언에 집중하면서 선도자 전략으로서 ESG 경영을 실행해왔다면 ESG 2.0 시대에서는 ESG 투자와 비즈니스 전환이 가속화되고 공급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협력사까지 ESG 관리를 확대하게 될 것임
- ESG 2.0 시대에는 ESG 1.0 시대보다 더 강화된 투자자들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음. 즉, 수동적인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 기회 관점으로 확대될 것임

ESG 1.0과 ESG 2.0 개념 비교

구분	ESG 1.0	ESG 2.0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ESG 개념 이해와 체계 구축목표 선언/로드맵 수립 단계방어적, 수세적 ESG 경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격적인 ESG 투자와 비즈니스 전환 단계공격적, 선제적 ESG 경영전략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투자자본이 주도하는 ESG기업은 방어와 리스트 대응 차원으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이 ESG 주도권 활용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리스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ESG를 하지 않으면 위기라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ESG를 하면 기회라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극적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ESG 관련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ESG 관련 예산을 투자로 인식

자료 : 김용섭, ESG 2.0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전략, 2022.

- > 따라서 기존에는 ESG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환경 이었다면 앞으로는 ESG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 아울러 ESG 2.0 시대에는 ESG와 관련된 규제와 정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며 특히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이 예상됨
 - 2025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미국 300조 원, 중국 1,845조 원 그리고 EU 700조 원 등을 비롯해 한국도 관련 산업을 위해 73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 > 그뿐만 아니라 향후 ESG 2.0 시대에는 공급사슬에 대한 ESG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의 경영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의 양상은 기업과 기업 간 경쟁이라기보다 공급사슬과 공급사슬 간 경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대기업은 협력사들에게 ESG 경영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해당 공급사슬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ESG 2.0 시대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 기업은 ESG 2.0 시대를 맞이해 크게 리스크 관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적극적인 정보 공시 측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함
- 환경(E)은 현재 자사를 중심으로 탄소배출 단계상 Scope 1과 2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Scope 3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Scope 3까지 확대하는 의미는 공급사슬과 연결된 협력업체들에게 ESG 경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탄소배출 관련 Scope 개념과 대상

구분	개념(정의)	대상	비고
Scop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직접 소유,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석연료(보일러, 화로, 터빈, 소각로 등) 화학반응(온실가스 발생 화학공정) 운송수단(승용차, 화물차 등) 	기업 내부
Scop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외부에서 구입하고 소비한 전기와 스팀 생산에 의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사용, 전기사용 열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발생 	
Scop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활동 결과이나 기업이 직접 소유 또는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물류, 출장, 공급사슬 및 제품 사용 등으로 발생한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한 자산, 프랜차이즈 판매된 생산품과 용역의 이용 아웃소싱 활동 등 	기업 외부

자료 : www.me.go.kr, (검색일 : 2022.8.30.)

- 사회(S) 부문 역시 기존 ESG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범위가 자사를 넘어 협력사 까지 확대될 것임
- 협력사의 ESG 리스크는 자사의 리스크로 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G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021년 중국 신장 지역 소수민족 노동착취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등을 사용한 제품이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에서 수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음
- 가능한 공급사슬 내에서 모든 협력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ESG 관점에서 위기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ESG 2.0 시대에는 글로벌 표준을 기준으로 ESG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ESG와 관련된 국제 협약 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ESG 중심의 비즈니스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속적인 기업 가치 증대를 실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소니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가전기업에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2010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PC, TV 사업 부문에서 철수하는 대신 자율주행차, AI, 로보틱스 등과 같은 ESG 친화적 사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2021년 MSCI(글로벌 주가지수)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음
 - 독일의 BASF는 ESG와 관련된 지속 가능 제품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 프로젝트를 평가 및 관리하고 있음
- ESG 2.0 시대에는 TCFD²⁾ 대응 전략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임
 - TCFD는 기업이 4개 주요 항목(거버넌스 governance, 전략 strategy,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지표 및 목표치 metric and targets)을 공개해 기후 위기 관련 사항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음

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로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협의체를 의미함. 2015년 기업들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를 공시하여 투자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G20 산하에 국제금융규제 및 감독 역할을 하는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설립했음

TCFD 보고서는 4개 주요 항목을 공시하고 ESG 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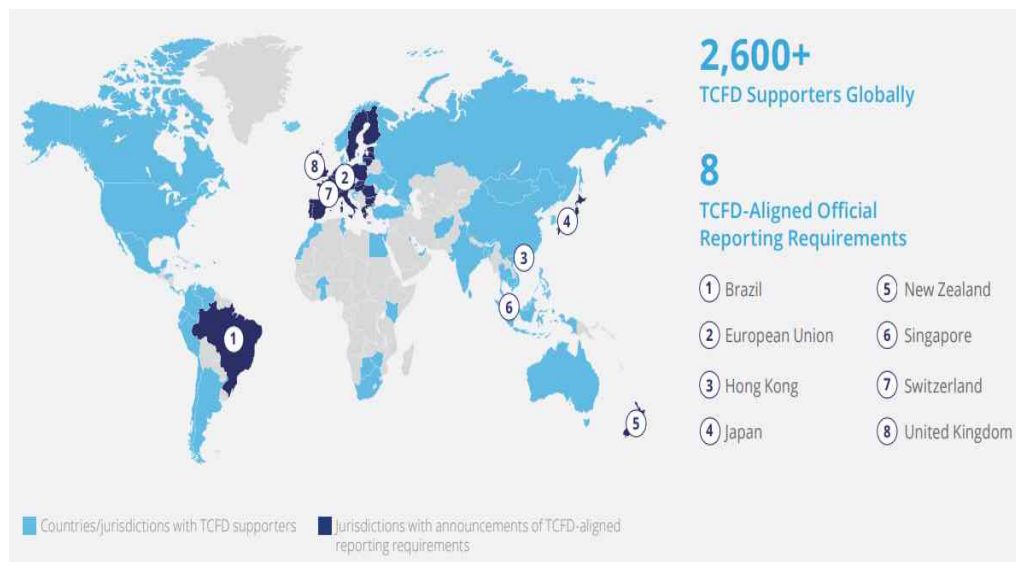
TCFD 보고서 주요 항목 공시내용(세부 공시항목)

항목	TCFD 권고 공시항목
거버넌스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활동 설명(board oversight)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의 주요 역할 설명 (management role)
전략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이 파악한 단·중·장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 설명(risk and opportunities)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사업과 전략, 재무관련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impact on organization)2℃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의 회복탄력성 전략 설명(resilience of strategy)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절차 설명(risk ID and assessment processes)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설명(risk management processes)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평가, 관리 절차가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integration into overall risk management)
지표와 목표치 metric and targ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와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에 사용한 지표에 대한 설명(climate-related metrics)온실가스 배출량 범위(Scope1, 2 및 가능하면 3까지)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설명(scope 1, 2, 3, GHG emissions)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설명(climate-related targets)

자료 : TCFD, 2021 Status Report, 2021.

- TCFD 공시는 자율적이지만 국제 ESG 공시 표준 차원에서 세계 많은 기업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무화하는 추세임
- 따라서 기업은 자발적,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21년 10월 기준 TCFD 보고서 발간을 기업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나라는 EU를 비롯해 브라질,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 모두 8개국임

TCFD 보고서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국가(2021년 기준)



자료 : TCFD, 2021 Status Report, 2021.

- 우리나라도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서 TCFD 권고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으며 6월에는 기후금융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TCFD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TCFD얼라이언스를 발족했음
 - 한국TCFD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관은 현대자동차, SK 등 기업이 36곳, KB금융 및 신한금융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18곳, 기타기관 2곳 등 모두 55곳이 참여했음
- 현재 정부는 TCFD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으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30년까지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물류기업이 ESG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ESG 관련된 글로벌 기준도 강제성이 없으며 우리나라도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정리되어있지 않으나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음
- 물류산업은 화주 기업의 요청에 따라 운송 및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주기업의 경영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글로벌 산업 전반에 미치는 ESG 영향력은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물류기업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애플은 생산 및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에 기반해 100% 조달 (RE100)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급사슬에 연결된 파트너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ESG 경영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ESG 적용 범위가 하나의 기업을 넘어서 공급사슬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ESG 2.0 시대의 특징이며 이와 관련해 제조기업에 직접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당 물류기업과 연결된 중소 물류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요구될 것임
 - 물류산업은 하나의 물류기업이 모든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기업이 협력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기업 및 화주기업의 ESG 도입 영향력은 물류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이는 화주기업이 공급사슬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1차 물류기업의 ESG 활동뿐만 아니라 2차 및 3차 물류기업의 ESG 활동까지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함
- 따라서 물류기업이 ESG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주기업으로부터 배제당할 가능성이 큼

- 국내 물류기업들도 이제 기업경영에 ESG를 도입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투자은행이나 기관이 재무적 가치보다는 오히려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ESG 경영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단계임

참고자료 : 김용섭, *ESG 2.0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전략*, 2022.

송상화, *지속 가능한 물류: CSR, CSV를 넘어 ESG로!*, 2021.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Status Report*, 2021.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www.etnews.com, www.fsc.go.kr, (검색일 : 2022.8.29.)

경영학 박사 이인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Fuzzyworld@yonsei.ac.kr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2022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신청기간

2022. 6. 13.(월) 09:00 ~
2022. 9. 2.(금) 18:00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22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른다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2년 12월 중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주소 참조)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 300만원, 정기점검 :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전문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제출서류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현황

2021 우수국제물류(주)	2020 (주)디엔비로지스틱스	2019 비아이디씨(주)	2018 (주)비엔피로지스틱스
2018 (주)대평	2015 동원로엑스(주)	2014 (주)C&S국제물류센터, 캄트로지스부산(주)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